▌논문▐ http://dx.doi.org/10.14431/jms.2019.10.12.3.251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이영라** · 이숙종***

국문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로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을 활용하여 공분산 구조분석 및 소벨테스트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개인적 정서인 자아탄력성, 사회적 정서인 공동체의식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수용성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킴에 따라 이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다문화수용성, 공동체의식, 자아탄력성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16S1A3A2924832), 2018년 9월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lee.youngra.0304@gmail.com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하고 있다. 동남아 출신 이민자 및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비롯하여 지난 해 제주도 예멘 난민입국을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을 볼 때,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아직 크게 부족해 보인다. 특히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에 따라(강진구, 2008),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를 근거로 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018 인구 주택 총 조사(통계청, 2019)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1651,561명으로 2010년 589,532명이었던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수 또한 늘어나, 2018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약 12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학생수의 2.2%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1].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통계에 집계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만을 포함하고 있어 새터민 가정 학생들을 포함할 시 실제 다문화 환경에 있는 학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문제로 교내 따돌림 현상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장임숙・이원일, 2012).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게 따돌림을 가하는 원인은 주로 차별과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전경숙, 2008),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및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미, 2009).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의식 발달을 위해서도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이 필요하다(박혜숙・원미순, 2010).

다문화수용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로서(김영선・강윤정 2017),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상태, 2016).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문화예술활동은 특히 청소년의 자아형성과 사회화의 과정에 중요한 정서적 기반을 형성해줌에 따라, 다문화수용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협약을 맺고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개인적·사회적 정서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청소년 개인의 내적 성장과 발달로서 자아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고취시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킨다(주동범, 2010). 또한,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함께 자존감, 자신감, 자기조절력, 공동체의식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도종수·성준모, 2013; 임영식·정경은, 2014). 특히,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문수, 2014; 최경일, 2018; Kelley & Meyers, 1995).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영향력 및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에 주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이라는 방식이 청소년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적어 심리적 접근성이 높다. 특히,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린사고 및 유연성, 공감능력 등에 의해 함양될 수 있다는 점과 교육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기 계발되어야할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해온 점을 볼 때,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다문화수용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입증함으로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정서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정서요인인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적 경험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상관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경험과 청소년기에 함양될 필요가 있는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의 자아형성과 사회화의 과정에 필요한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의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ktinson & Robson, 2012; Jermyn, 2001). 또한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다원주의 가치관의 습득을 도와 타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정신 확립의 기반을 형성한다(McGuigan, 2004; Mulcahy & Swaim, 1982).

영국・미국・호주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햄프셔와 마타이세(Hampshire & Matthijsse, 2010)는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문화예술활동이 신체적・정서적 발달, 자아정체성 확립, 자존감 향상, 정서적 안정, 문제행동 감소, 문화 차이 및 지역사회 문제인식 등에 영향력을 가짐에 대해 논하였다. 도종수・성준모(2013)는 문화예술활동이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 공동체의식, 자아존중감, 자신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하였다. 임영식・정경은(2014)은 교정시설 및 소년원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연구에서, 문화예술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자기조절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맹영임・김민・임경희・정미나(2005)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의 여러 장르를 체험하여 문화적 감성과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경은・임영식・신혜선・조영미・황용재・김설아(2018)는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은 심미적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매체교육, 문화적 문해(Cultural literacy)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미적, 창의적 능력과 더 나아가 소통능력이 발전되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보았다. 설연경(2012)은 문화예술활동을 청소년의 교육의 관점으로 보아, 문화적 가치, 다양성, 정체성, 소통 등의 문화적 측면과 감수성, 창의적 역량, 예술적 표현 등의 예술적 측면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된

경험이자 실천이라 보았다. 이를 설연경・강인애(2013)는 〈표 2〉와 같이 도식화하여 문화예술활동이 가지는 효과를 논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의 복합어로 흔히 함께 사용되지만 각각이 의미하는 바에는 차이가 있다. 예술 활동은 기술적인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기표현을 이끌어 내며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창의성을 함양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타인과의 소통 등 인간을 능동적이고 활력있게 하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문화활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계 및 성찰적인 이해, 문화적 다양성 및 가치,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문화예술활동은 이들이 상보하는 활동의 개념이다(설연경・강인애, 2013).

〈표 2〉 문화와 예술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의 문화예술활동

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		문화활동
미적향유	⇒	전인교육지향	⇐	문화적 감성 함양
창의적 자기표현	⇒	타 문화 가치, 문화이해	⇐	문화적 리터러시 활성화
자신에 대한 성찰	⇒	문화적 리터러시 함양	⇐	다른 분야와의 통합
자발적 표현 활동	⇒	미적 가치 함양	⇐	전통과 현재의 연계
삶의 질, 풍요로움 향상	⇒	창의력 증진	⇐	다른 사회와의 소통
타인 또는 다른 세계와의 소통	⇒	자기주도적 표현활동	⇐	타문화에 대한 이해
		삶의 질 향상		
		다른 사회와의 소통		
		다른 분야와의 통합		

* 출처 : 설연경・강인애(2013) 재인용

그렇다면 국내 정책에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무엇인가? 이는 청소년활동을 정의하는 청소년기본법과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통해 그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활동을 "9세 이상 24세 이하 사람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 3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

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따라 그 개념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문화산업진흥법의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끝으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정의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의 하나로,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등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 체험을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예술의 장르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에 이르는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문화전반을 아우르는 체험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성숙과 사회의식의 발달에 문화예술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 수업 중 문화활동과 공연관람 등의 사적 공간에서의 문화예술경험을 병합하여 문화예술활동 경험 여부를 측정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이란 학자들 간에 다양한 정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혹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김영선・강윤정, 2017; 민무숙・안상수・김이선・선보영・이명진, 2012). 그렇다면 다문화수용성 논의에서 인식되는 다문화의 개념은 무엇일까? 다문화는 문화에 대한 정의, 다문화의 주체 등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변화한 한국의 문화적 지형을 일컫는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의 움직임의 시작이 결혼이주여성을 유입하는 정책에서 시작된 데서 기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중범위적 개념의 다문화는 결혼이주여성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조선족, 난민 등 타국에서 한국 사회로 유입된 사람들의 인종적・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광의적 의미의 다문화는 한 국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소수인종, 동성애자, 소외계층 등)가 표출하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의미한다(황정선, 2010). 이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개념 또한 그 의미를 어느 범주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문화의 개념은 한 사회 안에서 더 많은 문화를 인정하고 포함해나가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개념이 유입 초기 협의의 의미를 갖던 것에 비해 중범위의 의미로 넓어진 것은 단일민족문화를 공유해 온 한국 사회의 문화적 수용의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정책 수요가 주로 해당 범위에 있으므로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주로 중범위의 개념으로서 다문화를 인식하고 집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다문화수용성을 정의함에 있어 다문화의 범위를 중범위로 보았다.

다문화수용성의 정의는 '자국의 생활양식과 다른 타국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는 역량'으로 볼 수 있으며(전성결・김현주, 2014), 윤인진・송영호(2011)는 '타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를 지향하는 태도와 열린 사고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을 경쟁자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과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3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민무숙 외, 2012). 우선 다양성은 각 문화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개인이 가진 배경문화 및 타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둘째, 관계성은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종과 사회・정서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능동적 태도이며, 셋째,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세계를 구성하는 일원임을 인식하고 타문화를 자신이 가진 문화와 동일하게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정의한다.

이를 종합하면, 다문화수용성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위한 교육 및 발달은 지식습득 등의 인지적 요인, 가치 및 태도 요인, 실천적 행동요인 3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태도적, 실천적 행동요인들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이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보다 사고가 유연해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형성에 수월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과 함께 오래 살아갈 미래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을 '우리가족과 출신국가, 인종 등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로 정의하고 종속변수로 통계적 분석에 적용하였다.

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안권순 외, 2019), 위기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존의 자아통제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Block & Kremen, 1996; Wright・Masten・Narayan, 2013). 블락과 블락(Block & Block, 1980)은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 및 환경에 필요한 내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으로서 스트레스원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가메지(Garmezy, 1991)는 위험요인의 존재에도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지 않고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적응된 모습을 보이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자아탄력성은 전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상황에 맞춰 자아통제력을 조절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특정 상황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지각, 인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과 환경 내의 보호적 자원들을 사용하여 대처하는 특징이 있고(송미령・김성영, 2012),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미숙, 2015). 자아탄력성은 가변적 요인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Dyer & McGuinness, 1996), 내적 기제로 작용하고 개인의 역동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대해 보호인자의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를 설명하는 속성 가운데 자아탄력성

에 주목한 것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이뤄졌다. 청소년의 또래 및 학교생활 적응에도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김지혜・유난숙, 2019; 유지혜・유혜승, 2018; 이미영, 2017),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측면에서 연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강영미・신원섭・이상주, 2019; 김경수・최지영, 2018; 박수영・이주재, 2019; 서보준, 2017; 안혜진, 2019). 이 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면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논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에게 다문화와의 만남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정진경・양계민, 2004; Berry & Annis, 1974; Lazarus & Folkman, 1984),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등의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강경훈・최수미, 2013; 구형모, 2000; 송현심・성승연 2015)과 자아탄력성이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김정희・안귀여루, 2013; 장경문, 2003; 한영민, 2009)에 주목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 속성 가운데 자아탄력성에 주목하고, 이를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의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4.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청소년기는 자신과 관련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시기로서(Guerra & Bradshaw, 2008), 공동체의식 형성에 중요한 발달 단계이다. 공동체의식은 집단 및 사회의 질서 유지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에도 매우 중요하여(김성훈, 2015; 박혜숙, 2019),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함에 있어 꼭 갖춰야할 인식이다.

이러한 공동체의식 개념은 학자들 간의 다양한 정의가 있다.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연구는 맥밀란(Mcmillan, 1976)의 연구와 맥밀란과 차비스의(Mcmillan & Chavis, 1986)의 공동연구로, 이들의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은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구성원 각자가 서로 간에 그리고 집단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있는 존재로 느끼며, 개별 구성원의 욕구가 공동체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피터슨, 스피어와 맥밀란(Petersen・Speer・McMillan, 2008)의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앞의 연구들은 공통되게 공동체의식을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 내 지역적・지리적 특성과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전통적으로 공동체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구성원의 거주지 기반으로 한 지역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정서적, 심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박재숙, 2010; 이기혜・방수민・이은혜, 2017). 즉, 최근 주목하는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의식 혹은 감정(McMillan & Chavis, 1986)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공동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강조한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이자(Cicognani・Pirini・Keyes・Joshanloo・Rostami・Nosratabadi, 2008), 개인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채수은, 2014; 한은영・김미강, 2013).

공동체 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체의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서서히 형성되고 획득되며 학습하는 것으로(이혜영, 1993),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Mannarini & Fedi, 2009). 공동체의식은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함양될 수 있어, 2015년 개정 교육과정도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하나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 및 관계 형성보다 개인의 출세와 성공에 주목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또래친구들이나 주변의 중요인물들과 상호작용하며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강석임・이윤정・정명숙, 2019).

그렇다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강가영・장유미(2013)는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관계와 같은 내적환경보다, 문화예술활동과 같은 체험활동, 학교생활 등의 외적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했다. 피커와 빈센트

(Peaker & Vincent, 1990)도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랜드리, 그린, 마타라소와 비안치니(Landry・Green・Matarasso・Bianchini, 1996)도 문화예술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 주민들의 창의 능력 개발,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대화 증진 등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청소년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면서 그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정서적, 심리적 요인으로서 공동체의식을 매개변수로 두고 통계분석을 하고 있다.

5. 변수들 간의 관계

(1)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의 개인적 정서와 사회적 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한다. 개인적 정서로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의 개념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에 있어 유연한 적응력을 보고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주목하였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본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정서 및 정체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와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하는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본 내용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Winkley, 1996/2000), 자기인지, 자존감 향상, 정서개발, 정서적 안정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Hampshire & Matthijsse, 2010).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은 예술, 체육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높아지며(최형임・이재성・문영경, 2012),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의미 및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자아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우・박재산, 2013; 박은성・현은민, 2007; 변유경, 2005; 성경주・이경아・김재철, 2017).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은 정서 발달에 순기능을 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Jermyn, 2001; McCarthy・Ondaatje・Zakaras・Brokkes, 2004). 윈클리(Winkley, 1996/2000)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식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주동범(2010)은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에 영향을 미쳐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공동체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타 문화와 타인에 대한 소통과 수용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 일정한 성취와 만족을 가져온다면 집단적 수준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다(맹영임 외, 2005).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미치는 영향에 대한 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독립변수이자 문화예술활동과의 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변수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여러 번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다문화수용성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황여정, 2012; 심우엽, 2010). 켈리와 마이어스(Kelley & Meyers, 1993)는 다문화수용성을 비교문화 적응성으로 보았다. 이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타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개방적인 유연성, 둘째, 낯선 환경과 문화에도 적응할 줄 알며,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정서적 탄력성, 셋째,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의 수월성 정도인 지각적 예민성, 그리고 문화 차이의 영향력에서 자아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개인자율성을 말

한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다문화수용성에 개인의 정서적 탄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박애선(2017)의 실증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집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을 다문화수용성의 결정요인으로 보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양계민(2009)은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배경에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으며, 김문수(2014)는 공동체의식은 지리적 공통성을 넘어 지역사회 내의 이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인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최경일(2018)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다문화수용성이 공동체의식의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동체의식에 의한 소속감 및 친밀감은 관계 맺는 타인에 대한 심리적 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간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각 변수별로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개인적 정서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정서요인인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자기 탐색 및 표현의 과정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 및 확립에 도움을 준다. 또한, 청소년기의 체험적인 활동은 자아탄력성을

형성하고, 외적인 상황에 대한 내적 자원의 기능을 한다(박은성・현은민, 2007).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문화예술활동과 같은 체험활동은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측면 등과 같이 사회의 책임감을 갖춘 성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들을 계발할 수 있게 한다(Pittman, 1999: 최경일, 2018에서 재인용). 또한, 이와 같은 발달은 소속감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acIver, 1920). 자아정체성의 혼란은 부정적인 정서를 만들어 배타적인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도 해(송길연, 2000), 학교폭력,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이동원・주동범, 2000). 특히 배타적 공동체의식은 나와 다른 문화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져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정서요인이 부정적으로 성장할 시, 나와 다른 사람과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아인식과 사회적 인식이 바르게 확립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활동의 발달은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은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매개효과에 관한 2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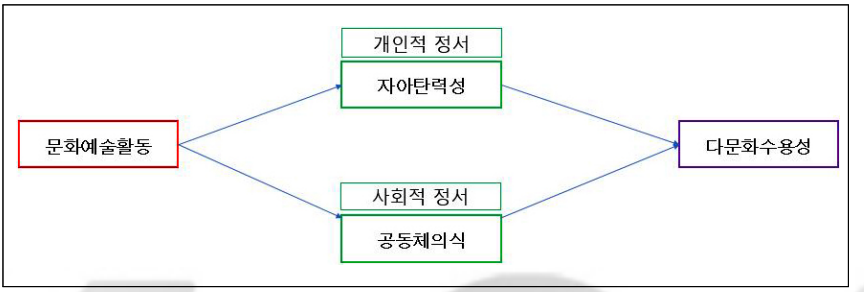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매개변수는 개인적 정서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정서요인인 공동체의식을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다문화수용성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측정 및 문항구성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표 3〉과 같은 문항을 활용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문화예술활동은 체험활동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체험활동 외에서 음악회 전시회, 연극 등의 문화예술활동의 경험 여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활동의 경험여부를 단일 지표로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은 양계민과 정진경(2008)의 다문화수용도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연구진이 작성한 5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은 블락과 크레멘(Block & Kremen, 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후 수정・보완한 문항(권지은, 2003에서 재인용) 중 6개를 활용하였으며, 공동체의식 측정에는 권혜원(2004)의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작성한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2].

〈표 3〉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지표
독립 변수	문화 예술 활동	CA	지난 1년 문화예술활동 경험 유무[3)] –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의 문화활동을 한 경험 – 체험활동 중 문화・예술 활동(지역문화, 세계문화, 어울마당, 전통 예술 활동)
매개 변수	자아 탄력성	SR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SR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SR3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SR4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SR5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SR6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공동체 의식	SoC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SoC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SoC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SoC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종속 변수	다문화 수용성	MA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4)]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MA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MA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MA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귈 수 있다.
		MA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총 16문항			

3. 가설정립

이 연구에서는 앞선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자아

탄력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 대한 6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가설은 〈표 4〉와 같다.

〈표 4〉 가설 설정

구분	가설
가설1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자아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6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4. 연구대상 및 표본의 특성

이 연구에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은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전체상 파악을 위한 종단조사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실시된 추적조사 데이터로 7차 패널(2016) 구축 후 완료되었다[5]. 해당 자료는 표집 시,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개의 패널로 구축하였다. 표본은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모집단 인구구성을 반영하여 16개 시도별로 비례 배분되었으며 시도별, 도시규모별 내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95개의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 패널의 7차 년도(2016년, 연구시점 고1) 자료를 사용하였다. 7차 년도 조사기간은 2016년10월~12월로 총 표본 수는 2,378명이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의 측정문항에 대한 무응답 값이 있는 표본을 제외하고, 1,979명(남학생 1,036명, 여학생

94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036	52.3	성적	매우만족	137	6.9
	여	943	47.7		만족하는 편	680	34.4
가족 형태	양부모가정	1,685	85.1		만족 않는 편	946	47.8
	한부모가정	154	7.8		매우 불만족	202	10.2
	조손가정	9	0.5		무응답	14	0.7
	기타	4	0.2	종교	기독교	423	21.4
	무응답	127	6.4		불교	152	7.7
형제 자매 유무	있다	1,651	83.4		천주교	110	5.6
	없다	201	10.2		무교	1279	64.6
	무응답	127	6.4		기타	15	0.8

5. 분석방법

실증 분석은 SPSS 22.0, AMOS 22.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된 각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 및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이 연구는 매개변수인 공동체의식, 자아탄력성,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동일 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지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적재량이 높은 문항 순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멕스(Varimax) 회전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50이상인 경우 높은 유의성을 가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769에서 .858의 범위에서 나타나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MO = .857).

각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각 요인별 변수의 신뢰도는 자아탄력성(.769), 공동체의식(.787), 다문화수용성(.858) 모두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6〉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요인적재량	고유값	Cronbach α
자아탄력성	SR2	.717	2.912	.769
	SR5	.688		
	SR3	.680		
	SR6	.650		
	SR1	.639		
	SR4	.623		
공동체의식	SoC3	.797	2.544	.787
	SoC2	.775		
	SoC1	.696		
	SoC4	.681		

구분	문항	요인적재량	고유값	Cronbach α
다문화수용성	MA4	.852	3.231	.858
	MA5	.819		
	MA3	.769		
	MA2	.719		
	MA1	.709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신뢰도 분석 실시 후, 변수 측정 문항들의 타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정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타당성 검정기준으로는 CMIN/DF, NFI, RFI, CFI, TLI, IFI, RMSEA 값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MIN/DF값은 3.089로 적합지수가 적합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NFI .982, RFI .973, CFI .988, TLI .982, IFI .988, RMSEA .032로 적합지수의 값을 충분히 충족하여, 모두 우수한 값으로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의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적합도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S.E	C.R.
SR2	←	자아 탄력성	.717***	–	–
SR5	←		.688***	.055	18.022
SR3	←		.680***	.082	14.912
SR6	←		.650***	.068	14.971
SR1	←		.639***	.059	17.552
SR4	←		.623***	.061	13.97
SoC3	←	공동체 의식	.797***	–	–
SoC2	←		.775***	.049	20.971
SoC1	←		.696***	.050	19.617
SoC4	←		.681***	.040	26.522

경로			표준화 회귀계수	S.E	C.R.
MA4	←	다문화 수용성	.852***	–	–
MA5	←		.819***	.029	36.626
MA3	←		.769***	.049	20.782
MA2	←		.719***	.035	23.165
MA1	←		.709***	.042	21.671

구분	x^2	CMIN/DF	NFI	RFI	CFI	TLI	IFI	RMSEA
기준		≤3.84	≥.90	≥.90	≥.90	≥.90	≥.90	〈.05
모형	216.231	3.089	.982	.973	.988	.982	.988	.032

2. 상관관계 분석

본격적인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8〉은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먼저, 독립변수인 문화예술활동은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아탄력성은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든 변수들이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문화예술활동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문화예술활동	1	.065***	.131***	.119***
자아탄력성		1	.377***	.301***
공동체의식			1	.466***
다문화수용성				1

*** p〈 0.01

3. 공분산 구조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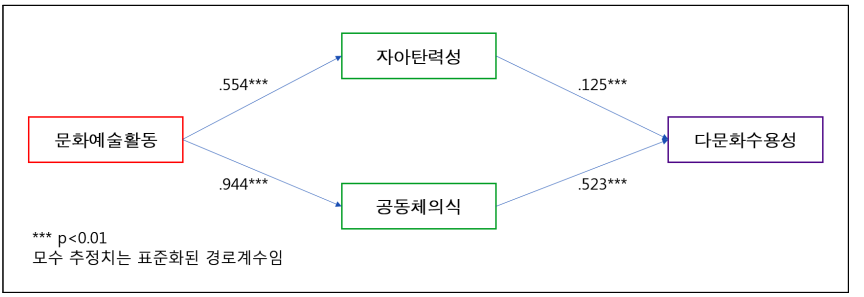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2.0을 활용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χ^2 값는 241.118이고, p값은 .000으로 나타났으나[6], 표준 χ^2 (CMIN/df)값이 2.538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절대적합지수에서 RMSEA는 .028, 증분적합지수에서 NFI는 .980, RFI는 .972, CFI는 .988, TLI는 .983, IFI는 .988, RMSEA는 .028로 나타나 모델 값이 기준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본 연구의 공분산 구조분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9〉 모형 적합도

구분	x^2	CMIN/DF	P	NFI	RFI	CFI	TLI	IFI	RMSEA
기준		≤3.84		≥.9	≥.9	≥.9	≥.9	≥.9	〈.05
모형	241.118	2.538	.000	.980	.972	.988	.983	.988	.028

[그림 2]는 실제적인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실시한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로, 경로계수의 값은 모두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예술활동은 자아탄력성(.554)과 공동체의식(.944)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유의수준 0.01에서 다문화수용성(.125)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 또한 유의수준 0.01에서 다문화수용성(.523)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이어서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표 10〉은 Sobel Test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통해,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이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0〉 Sobel Test 결과

경로	Test statistic	*P*– Value	매개효과
문화예술활동 → 자아탄력성 → 다문화수용성	2.70881629	0.00675237***	O
문화예술활동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2.69153141	0.00711248***	O

*** $p < 0.01$

4. 가설검증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설 6개 중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11〉은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설1, 2가 채택됨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설3, 4가 채택됨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 모두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설5, 6이 채택됨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은 문화예술

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11〉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결과
가설1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자아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공동체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6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Ⅴ. 결론

이제 한국에서는 다른 인종의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새터민 또한 많이 늘어났다. 그간 이주민과 관련하여 재중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어린 인식이 다문화와 관련된 주된 사회적 이슈로 다뤄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유럽에서 시작된 난민 이슈가 한국에서도 논의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 또한 더욱 높아졌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함양함에 있어 문화예술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이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에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여 6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자료는 2016년도에 조사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NYPI) 2010의 7차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공분산 구조분석,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 2의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요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문화감수성 향상 및 자아 표현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삶에서 어떤 문제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스트레스나 내면적인 긴장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달되어야 함은 물론, 입시경쟁 및 진로결정의 불안감에 있을 청소년들에게는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공동체의식 또한 한 사회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함에 있어 함양되어야 할 요소임과 동시에, 또래집단 간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 따돌림 및 최근 만연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과 같은 SNS 상의 일방적 괴롭힘 등 학교에서 통제・관리하기 힘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공동체의식의 부족과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김진구・박종효, 2015; 류승아, 2016; 박한숙, 2016; 정일영, 2019). 이에 청소년기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탄력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식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 문화예술활동 또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문화예술적 체험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형식이 있다. 문화예술 관람활동, 교과수업, 체험교육 및 문화예술기반 수업 등 여러 형식의 교육은 공통적으로 문화예술적 소양 및 문화문해력, 감성적 정서 함양을 기대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학습은 앞의 효과 및 기억에 의존하는 인지적 교육에서 더 나아가, 공감에 의한 인식 및 태도 변화 효과를 가져 온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구조화된 문화예술교육 이전에 문화예술을 즐기는 활동만으로도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정서를 함양하여 발달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요인에 주목한 문화예술 체험 설계는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청소년 발달에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공통된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문수, 2014; 문정애, 2011).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박애선, 2017).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부터 새로운 환경 및 문화에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을 높이며, 본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이웃에 대해 배려・존중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로 나아가고 국제적 교류가 많아져감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함양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8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에 따르면, 2015년도 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대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3.59점 높아져 71.2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3년 전 대비 1.14점 낮아진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최근 해당 조사가 이뤄진 3년 사이 제주도 예멘 난민 이슈 등 다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이 주목하는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다문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시민들도 한 번 더 고민하고 본인의 입장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행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가족, 학교, 이웃, 미디어 등으로부터 다문화적 경험을 많이 했던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수용성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정서와 인식 함양으로서의 자아탄력성 및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청소년 개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수용되고, 또래집단 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청소년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인식의 발달과 성숙에 꼭 필요한 부분

이다. 다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청소년으로의 성장은 개인의 삶에 유익한 자아탄력성 및 공동체의식의 발달이 이끌어 낼 결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시기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동체의식과 청소년 개인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은 문화예술활동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정서함양은 청소년이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이는 다문화 환경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자기표현 방법의 다양성을 익히게 되며 이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이어진다. 또한, 자아정체성의 확립은 속한 공동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다가갈 수 있게 하며,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공감능력의 향상은 공동체의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여러 문화를 수용할 수 있게 이끈다.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이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이는 청소년이 다양한 신체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의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 타인의 입장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및 맥락 그리고 느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확장되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에게 여러 문화와의 만남에서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이끌며,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지식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학교, 부모, 기관은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내 지원 외에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개인을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청소년기 문화예술 체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공연장, 박물관 등의 시설에

서 청소년 요금을 저렴하게 받는 개념을 넘어, 청소년에게 공연, 전시 관람은 물론 도서, 음반 구매 등의 개인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바우처는 복지의 관점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익숙하지 않다. 이는 청소년에게는 문화예술정책이 교육의 측면에서 주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개인의 생활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탄력성,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연구에 있어 통계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 입시 위주의 학업 및 생활이 진행되고, 승패 위주의 경쟁시스템에서 청소년들은 감수성 및 정서의 제한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활동은 감수성 및 감정표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교육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창의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는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감성적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넘어, 개인 자아의 건강 및 성숙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다문화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그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시한다. 첫째, 이 연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연구함에 있어 문화예술활동 변수의 측정을 경험 유무만으로 진행한 것의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체험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방법을 분류하여 측정하거나 문화예술활동의 횟수/시간 혹은 관여도 등을 활용하여 연구한다면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는 일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문화로 분류되는 팬덤문화활동이 청소년기에 매우 높게 일어난다는 점과 팬덤활동이 다양한 문화 요인에 대한 빠른 흡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해당 집단 내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팬덤문화활동을 독립변수로 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학업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쁜 문화로 판단하기보다, 청소년의 몰입력이 높은 팬덤문화가 그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 학교 교육 외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발달요인을 검증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각 학령기별로 나누어 연구함으로써 더욱 세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1) 전체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수는 그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1〉에서 다문화학생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을 합한 수이다.

〈표 1〉 다문화가정 학생 수

	전체학생(천명)	다문화 학생수	비율	전년대비 증가
2007	7,735	14,654	0.2	56.1
2008	7,618	20,180	0.3	37.7
2009	7,447	26,015	0.3	28.9
2010	7,236	31,788	0.4	22.2
2011	6,987	38,678	0.6	21.7
2012	6,730	46,954	0.7	21.4
2013	6,489	55,780	0.9	18.8
2014	6,294	67,806	1.1	21.6
2015	6,097	82,536	1.4	21.7
2016	5,891	99,186	1.7	20.2
2017	5,733	109,387	1.9	10.3
2018	5,593	122,212	2.2	11.7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2018)「교육기본통계조사」

2) 조사문항의 출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코드북에 제시되어 있다.

3) 실제조사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39]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 활동(지역 문화, 세계 문화, 어울마당, 전통 예술 활동)
[문44] 지난 1년 동안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의 문화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몇 회 정도였는지 써 주십시오.

4) 조사 설문지 문항에서 응답에 앞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을 정의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대로 한국에서 살아온 가정의 청소년과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새터민(탈북자)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의 청소년은 서로에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KCYPS 초4 패널 1–7차 조사표, 2017)

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3~2008년)의 후속 연구이며, 현재 7개년 추적조사 데이터가 완료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아직 1차 패널의 조사 결과는 보고 되지 않았다.

6) 공분산 구조모형에서 χ^2의 p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도 다른 지표들이 적합할 경우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표본 수가 200이상이면 χ^2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기각되기 쉬우며, χ^2 검정은 관측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Leamer, 1978: Schumacker & Lomax, 1996). 따라서 χ^2 값이 유의적으로 나타났어도 제안모델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좋은 모델일 가능성이 있으며, 모델검증 조건들이 위배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χ^2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적합도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배병렬, 2017).

KCI

〈참고문헌〉

강가영・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강경훈・최수미 (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5–85.

강석임・이윤정・정명숙 (2019).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5(2), 67–76.

강영미・신원섭・이상주 (2019). “숲 체험 미술활동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2), 111–130.

강진구 (2008). “다문화 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조사”. 『다문화연구』 1, 53–77.

고미숙 (2015).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감성지능・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 생활 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0), 280–291.

구형모 (2000). “자아탄력 집단의 성격특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근・황여정 (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김경수・최지영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임상미술심리연구』 8(3), 101–128.

김문수 (2014).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4(2), 36–64.

김상태 (2016). “다문화학생과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정서공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281–290.

김성훈 (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 의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김영선・강윤정 (2017). “미술과와 사회과의 통합수업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조형교육』 63(1), 67–97.

김정희・안귀여루 (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23–836.

김지혜・유난숙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1), 1–19.

김진구・박종효 (2015). “초등학생의 공격성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 또래 공동체 의식과 교사 친밀성의 조절효과”. 『열린교육연구』 23(4), 207–231.

도종수・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류승아 (2016). “청소년들의 과거 비행피해 경험과 공동체 의식이 정서 및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11), 87–111.

맹영임・김민・임경희・정미나 (2005).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5–R0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문재우・박재산 (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공동체의식・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문정애 (2011). “배려공동체를 위한 다문화 인격교육 탐색”. 『인격교육』 5(2), 37–66.

민무숙・안상수・김이선・선보영・이명진 (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2–5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영・이주재 (2019).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청소년의 주관적 빈곤감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 – 자아탄력성과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33(1), 193–210.

박애선 (2017).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93–106.

박은성・현은민 (2007).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83–94.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자아존중감·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박한숙 (2016). “초등학교 학생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교폭력 태도와의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767–784.

박혜숙 (2019). “공동체의식 변화양상과 개인・가정・학교특성이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1), 555–576.

박혜숙・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변유경 (2005).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보준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111–133.

설연경 (2012). “문화예술활동 기반 교육에서 미적 경험이 주는 교육적 효과 분석 : 지적 · 정서적 · 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설연경・강인애 (2013). “문화예술활동 기반 교육에서 미적경험이 주는 교육적 효과 분석을 위한 루브릭 개발”. 『조형교육』 46, 165–197.

성경주・이경아・김재철 (2017).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1), 51–72.

송길연 (2000).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송미령・김성영 (2012). “중학생의 또래 애착·자아탄력성·휴대폰 의존과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32(1), 65–89.

송현심・성승연 (201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29–157

심우엽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안권순・강덕환・명향란・Bongobi, N. K.・Umakanta, G.・Aqeel, M. 외 (2019).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희망과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6), 275–296.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789–807.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양계민・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

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8-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성경・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연구』 16(4), 189-206.

유지혜・유혜승 (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9(1), 89-113.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이기혜・방수민・이은혜 (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학업성취수준 및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7(4), 105-135.

이동원・주동범 (2000).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식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미영 (2017).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 청소년 비교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439-458.

이혜영 (1993).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3(2), 113-134.

임영식・정경은 (2014).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64, 115-145.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장임숙・이원일 (2012).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15(4), 177-199.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전성결・김현주 (2014). “청소년의 인종간 우정에 미치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의 효과: 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83-205.

정경은・임영식・신혜선・조영미・황용재・김설아 (2018).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일영 (2019). “부모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58, 71-96.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주동범 (2010).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탐색”. 『상담평가연구』 3(1), 61–70.

채수은 (2014). “매체 활용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3), 433–461.

최경일 (2018).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0(1), 117–135.

최형임・이재성・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통계청 (2019). “2018 인구 주택 총 조사”.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2018). “교육기본통계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영민 (2009).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의 관계”. 『인간이해』 30(1), 97–110.

한은영・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5.

홍정미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정선 (2010). 『다문화가정 소비피해 실태와 소비생활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10–18). 서울 : 한국소비자원.

Aktinson, S. & Robson, M. (2012). “Arts and health as a practice of liminality: Managing the spaces of transformation for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Health & Place, 18,* 1348–1355.

Berry, J. W. & Annis, R. C. (1974).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382–406.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Collins, W. A.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Cicognani, E., Pirini, C., Keyes, C., Joshanloo, M., Rostami, R., & Nosratabadi, M. (2008).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 97–112.

Dyer, J. & McGuinness, T. (1996). "Resilience: analysis of a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 276–282.

Garm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s, 20,* 459–466.

Guerra, N. G. & Bradshaw, C. P. (2008). "Linking the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re competencies for positve youth development and risk preven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 1–17.

Hampshire, K. & Matthijsse, M. (2010). "Can arts projects improve young people's wellbeing? A social capital approach". *Social Science & Medicine, 71,* 708–716.

Jermyn, H. (2001). *Arts and social exclusion : a review prepared for the Arts Council of England.* United Kingdom: Arts Council England.

Kelley, C. & Meyers, J. (1995).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s.

Landry, C., Green, L., Matarasso, F., & Bianchini, F. (1996). *The Art of Regeneration: Urban renewal through cultural activity.* Stroud: Comedia.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andappraisal.* Newyork: springe.

Leamer, E. E. (1978). *Specification Searches : Ad Hoc Inference with Non–experimental Data.* New York: Wiley.

MacIver, R. M. (1920). *Community, a Sociological Study.* London: Macmillan Press.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s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2), 211–227.

McCarthy, K., Ondaatje, E., Zakaras, L., & Brokkes, A. (2004). *Gifts of the Muse: Refor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RAND Institute.

McGuigan, J. (2004). *Rethinking cultural policy.* Berkshire,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Mcmillan, D. (1976). *Sense of community: An attempt at defini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 Nashville.

Mcmillan, D.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Mulcahy, K. V. & Swaim, C. R. (Eds.) (1982). *Public policy and the arts.* Boulder, CO: Westview Press.

Peaker, A. & Vincent, J. (1990). *Arts in prisons: Towards a sense of achievement.* London: Home Office, Research and Planning Unit.

Petersen, N. A., Speer, P. W., & McMillan, D. W. (2008)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 61–73.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awrence Erllbaum Associate.

Winkley, W. (1996).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신현순 역 (2000).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장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Wright, M. O., Masten, A. S., & Narayan, A. J. (2013).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Four waves of research on positive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dversity". In Goldstein, S. & Brooks, R. B. (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y and Sense of Community

▌Lee, Youngra* · Lee, Sook Jong** ▌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s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on thei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ego resiliency and sense of communi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as applied to th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The data demonstrate three outcomes. First, adolescent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develop their ego resiliency, personal emotions, and sense of community. Second, developing adolescents' ego resiliency and sense of community has a positive effect on build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ird, the arts and culture activities of adolescents cultivat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rough ego resiliency and sense of communit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rograms exposing adolescents to variou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would aid them in developing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peers and fellow citizen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Key word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Sense of Communit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go Resiliency, Adolescent

투 고 일 자 : 2019년 08월 15일
심사완료일자 : 2019년 09월 05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09월 18일

* First Author,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